

# 자못 걱정스러운 우리말의 현실

## 신복룡

전국대 교수 · 도서관장

역시 설악산은 아름답다. 四季를 두고 저렇게 아름다운 곳도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악이 저렇게 금강산은 오죽이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마음이 울적할 때면 설악의 겨울바다를 본다. 그러면 마음의 응어리가 씻겨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설악엘 갔다.

설악을 가려면 인제에서부터 줄곧 산길이다. 눈이 몹시 내려 구경하기에는 좋았지만 교통이 아주 불편했다. 산길로 접어들면서 나는 길 한 모퉁이에 서 있는 '방활사'라는 팻말이 눈 위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저것은 절로 들어가는 샛길을 표시하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절의 표지는 으레 한자로 쓰는 것을 상례로 알고 있는 나로서는 한글 팻말을 보면서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저것은 한자로 어떻게 쓸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활'字야 더 생각할 것도 없이 '活'이겠지만, '방'은 '放'일까? 아니야, '芳'일 수도 있겠지. '放活寺'이든 '芳活寺'이든 간에 절 이름으로서의 관습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참을 더 가니 그 모퉁이에도 '방활사'라는 팻말이 서 있었다. 아니, 꼭 같은 절의 이름이 몇십리 간격을 두고 둘씩이나 있던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렇다면 그 팻말은 절의 표지가 아닐까야. 그렇다면 '방활사'란 무슨 뜻일까?

나는 지나온 산모퉁이의 위치며 팻말이 서 있던 모습을 더듬으면서 '방활사'의 의미를 추론해 보았다. 한계령을 지나고서야 나는 빙긋이 웃을 수가 있었다. 그것은 '防濬砂'였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차가 미끄러지지(滑) 않도록(防) 쌓아둔 모래(砂)였다. 모래가 눈에 덮여 있지만 앉았어도 즉시 알았을 것을 50센티가 넘는 눈 위로 목만 빼죽히 내밀고 있었던 탓으로 나는 그 의미를 몰랐다.

아무리 한글 전용어라 해도 한글로 써야 할 것이 있고 쓰지 못할 것이 있다. 그것이 어디 '방활사'뿐이라. 많은 분들이 시골 들판을 지나면서 보았겠지만 '건담직파'라는 말도 꽤나 신경겨슬리는 팻말이다. 나같은 시골 출신에 글줄이나 읽었으니 마른 눈에 바로 씨뿌리기(乾畝直播)로 넘겨 짚을 수 있겠지만, '소주밀식'은 정말로 모르겠다. 거리에 써 있다면 술애기로 알겠지만 그것이 밭에 서 있으니 '주'는 그루터기(株)일테고 '식'은 심는다(植)는 뜻일테니 '疎株密植'일까? 아직도 자신이 없다. 트럭 뒤에 붙은 '전착도장적재함'도 정말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 글을 쓰느라고 사면팔방의 전문가들에게 2시간 걸려 확인한 결과 '전기식(이온식)으로 페인트칠하도록 되어 있는 짐칸'이라는 뜻이란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짐을 싣는 방법에 관한 뜻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독일의 민족 지성 피히테(J. G. Fichte)의 말에 의하면, 한 나라가 망하려면 먼저 언어가 죽고, 그 다음에 詩가 죽고, 마지막으로 역사가 죽는다고 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언어는 한없이 오염되어 있고, 詩는 풀갈잡게 어렵거나 말장난이 되어 있고, 역사는 안팎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말이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라가 걱정스러운 지경이 되었다. 국어학 하는 사람만이 안달떨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해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권두대담	2	사진으로 구현한 휴머니즘의 아름다움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 펴낸 유주영씨
리뷰	4	기초에서 응용까지 컴퓨터입문서 20선 컴퓨터를 배우려는 이들이 볼 만한 책
리포트	6	유통시스템을 중심으로 본 독일출판의 현황 90한·독 출판협력에 관한 세미나
서평	8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와 비판적 인식」—조대엽 니스벳 「현대사회의 정신사적 기초」—김동일
	9	오코너 「현대국가의 재정위기」—조연상 데이비드 레비 외 「이윤과 사회」—장지상
	10	최종고 「한국법학사」—최달근 버틀러 「소비에트法」—김철
	11	송건호 「한국현대언론사」—방정배 김동원 「이성과 자연」—전영태
	12	송상용 「서양과학의 흐름」—신중섭 정규복 「한국고전문학의 원전비평」—유태일
	13	머리 「문체론 강의」—유기룡 오규원 「현대시작법」—김준오
출판화제	14	북한원전 출판의 새 경향 '의약도서' 북한한의학의 실천적 연구성과 소개
	15	문학의 길로 이끄는 창작지침서들 만화로 보는 현대과학의 세계
이 책 그 사람	16	「조르즈 상드」 펴낸 이재희 교수 「우리의약의 역사」 펴낸 정민성씨
	17	「자동차 이야기」 펴낸 전영선씨 「행보의 詩…」 펴낸 이준오 교수
연재기획	18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16 사전출판의 명문 민중서관을 중심으로
해외화제	20	출판대국 美·日의 새로운 시장전략—이봉호
화제의 인물	22	전국에 어린이도서관 세우는 이인표 회장
서점가 소식	23	강남최대의 서점 '월드북 센터'
세계의 출판	24	자본주의 역사가 그린 레닌의 초상·외
독자서평	26	장지희/김미영/권미정/김용모
	28	새로나온 시집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